

국힘, 정청래 지역구에 김경율 공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타에서 열린 서울시장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객 공천 방침...예비후보들 '불공정 경선'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사·도당 신년회에서 이른바 '자객 공천' 방침을 연일 밝히면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수도권 지역구 탈환론에 무게를 뒀다.

한 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장 신년인사회 인사발에서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저격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 드리겠다"며 "마포에는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 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마포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김경율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김경율 비대위원을 정 의원의 맞상대로 지목했다.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에 대해 "김경율을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

워왔다. 이 김경율이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소개하며 김 비대위원을 무대 위로 불러 세웠다.

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책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했다. 김 비대위원은 "당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낯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어제 인천 계양, 그리고 이곳 마포에서 국민의힘에는 협치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인천시장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출마할 사람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당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며 "선택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 온 원 전 장관은 "제가

운몽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승리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이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지역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도 있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마포구의 경우 현재 김성동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다. 김 당협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포출마를 공개 지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비대위원을 전략공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김 비대위원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우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해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당 대표가 직접 공개 지지 의사를 표해 불공정 경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공천은 시스템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다"며 "명백하게 제 왔던 힘에서 초반에 나서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연합뉴스 cki@kwangju.co.kr

尹, 野 방심위원 2명 해촉...野 "언론에 재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김유진·육시찬 방심위원 2명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도 모자라 이를 방해하는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류희립 위원장의 철면피 같은 해촉안을 꾸짖

기는커녕 재가하다니 충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촉 사유가 무엇이고, 정부 민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라"며 "윤 대통령은 정부 민원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어떤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류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잇단 결정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폭거"라며 "윤 대통령은 정부 민원

을 덮어주려는 망상을 접고 류 위원장에 대해 즉각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육 위원은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육씨와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진 사건이 문제가 돼 해촉 건의됐으며,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해촉 건의의 배경이 됐다.

/연합뉴스

與 공관위 "현역 컷오프, 7명 더 될수도"

현역 하위 18명에 경선 득표율 20% 감점 페널티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적용할 '현역의원 하위 10% 평가자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이제 10%이지만 나머지 20%(하위 10~30% 평가자)도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경선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른 변수도 있어서 기다려 보면 된다. 경선이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천학살' 우려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며 "현역 중에 활동 잘하는 사람이 10%에 들 리가 없지 않다. (컷오프는) 잘 못한 분들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전날 공관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7명을 컷오프하고, 하위 10~3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18명에 대해서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점 페널티를 주는 내용의 공천 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

율이 15% 감점되는 페널티를 받게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이면 최대 35%의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공천에서 완전 배제되는 현역 의원은 7명에 불과하지만, 하위 10~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감점 페널티를 적용받으면 몰 같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 최대 35% 감점이 적용되는 데 대해 "그것은 아주 최악으로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면서 "주관적 감점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관건"이라며 공천 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천 심사에 반영될 '당 기여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활동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좀 있으니,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태섭 "통합 정당 협의기구 구성하자"

"설 전후 출범해야"...강령에 여성징병제 포함도 제안

신당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태섭 전 의원은 17일 제3지대 통합 정당을 띄우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각계 세력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치어는 접어두고 하나의 건강한 정당 안에 모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든 새로운미래,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3인방이 구성한 미래대연

합, 양향자 의원의 한국희망 등 제3지대에 나와 있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강령'을 마련하자는 게 실무협의기구의 목표다.

금 공동대표는 연합 방식에 대해선 "기준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 정당 조직을 이용해도 되고, 합당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될 것"이라며 "새로운선택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로운선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친 상태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문금주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 해법 찾겠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문금주 예비후보는 17일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체계 구축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장흥 가축시장을 방문해 축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가축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했다. 문 예비후보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내며 가축 전염병 등 지역 가축 산업과 관련된 현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예비후보는 가축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과 어려움을 듣고 '재난'에 가까운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방안과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민관 협력을 강화해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문 예비후보는 민관 협력 주요 방안으로 ▲공동방제를 위한 축산 단체와의 협력 ▲방역 인프라 구축 ▲거점 소독 시설·통제 초소 원할 운영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 가축 산업은 우리 경제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